

장기 에너지 정책의 결정요소

Basic Issues on the long term energy policy

김 호 경
한 국 가 스 공 사

I. 서 론

에너지는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에게 필수 불가결한 것이 되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사회가 발전됨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양은 분야에 있어서나 국민일인당 에너지의 사용량에 있어서 더욱 증가 할 것이 확실하나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 나라는 필요한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서의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므로 에너지이용 효율의 향상을 통한 에너지 절약과 국제규모의 대기 공해 방지에 협력하면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에너지의 장기 안정적 확보와 국내 에너지 공급 시설 및 구조의 정비, 가격체계 등 종합적인 장기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

공해 문제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사회인식의 불일치, 과다한 중동원유 의존도 등 국가가 필요로 하는 1차에너지에 대한 국가적 목표가 확실히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청정에너지의 이용증가에 따른 천연가스의 수요증가가 논의되고 있지만 다른 에너지의 공급분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천연가스 단독의 수요를 결정 지을 수 없으며 또 천연가스의 수요가 어느정도 예측되더라도 원료의 확보, 국내기반 시설의 확충, 공급체계 등 많은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다.

장기 종합에너지 정책의 수립에는 적어도 30년 단위의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경제의 규모와 국민소득의 변천, 이에 따른 개인생활, 사회의 형태등에 대한 거시적 경제 측면의 거론이 필요하고 이러한 전제하에서 각 분야별 최종에너지의 수요가 결정 되어야 하며 필요한 에너지의 조달은 효율향상에 의한 절약 목표와 대체에너지 신기술 개발에 의한 국내 공급 가능량을 결정한 후 논란이 되고있는 지구 온난화와 산성비 등의 방지를 위한 공해물질 방출 기준에 입각한 연료의 Mix 및 국제정치상의 불안 요소와 에너지의 경제성등을 고려한 확보가능한 1차 에너지의 공급구조를 결정해야 될것이다.

여기에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현실성도 면밀히 검토되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에너지의 공급하부 구조, 즉 항만, 인수 정제 시설로 부터 수송,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설과 이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효과적 공급을 위한 공급체계, 최종 에너지의 가격체계, 필요한 에너지의 공급촉진을 위한 국가의 금융 및 세제 지원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를 검토하고 의견을 조정하고 수렴하여 국가적인 정책 목표가 세워져야 하는 바 이러한 국내 장기에너지 정책수립에 고려되어야 요소들을 검토해보고 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에너지의 장기 안정적 확보와 국가 발전에 보탬이 되고져 한다.

II. 본 론

1. 국내에너지 수급실적

- 1) 1차 에너지 소비 추이
- 2) 최종에너지 부문별 소비구조
- 3) 석유의존도 변화 추이
- 4) 국내 총생산 대비 에너지 소비 증가율
- 5) 우리나라 장기 에너지 수요예측

2. 국제 에너지 상황

- 1) 자원 매장량
- 2) 주요국 에너지 공급 추이
- 3) 주요국 에너지 소비 추이
- 4) 에너지 소비의 대GDP 원단위 추이

3. 에너지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 국내경제
- 2) 에너지 자원의 분포 및 생산 가능량
- 3) 지구환경 규제

- 4) 원자력 발전의 계속
- 5) 천연가스 공급원의 확보
- 6) 에너지 이용 기술의 발달

4.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한 당면과제

- 1) 정책 수립 기간의 설정
- 2) 국가 경제 규모
- 3) 에너지 소비 구조의 예측
- 4) 에너지 절약 목표의 확정
 - 대상 분야 및 목표 설정
 - 수행기간 선정
 - 국가 정책지원 결정
 - 주관위원회 운영
- 5) 대체 에너지 기술 개발
- 6) 원유 수입의존도 결정
- 7) 공해 배출량 기준 설정
- 8) 전력생산
- 9) 천연가스 공급원 확보 정책
- 10) 석탄 이용기술 개발
- 11) 국제 에너지 기구간의 협력
- 12) 에너지에 대한 R & D
- 13) 에너지 주도기관의 선정 - 정부
- 14) 에너지 가격, 금융지원, 세제혜택 - 정부의 제도적 지원

Ⅲ. 결 론

장기 에너지 정책은 무엇보다도, 필요한 에너지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로서 에너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대체에너지 개발에 의해 에너지의 수입 의존도를 최대한 줄이고 필요한 에너지를 필요한 때에 순조롭게 확보, 공급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목표로서 장기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정부와 연구기관들과 업계가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될 것이다. 따라서 어느 한 기관에서만 결정은 전체 목표의 일부이거나 아니면 타 분야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잘못, 정책의 방향이 오도되거나 비현실적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에너지를 다루는 정부의 동력자원부가 주관이 되어 정부, 각 연구소, 각 기업체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당면과제에 대한 검토, 대안도출, 추진 목표의 설정, 후속 추진의 점검, 정부의 지원등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정책목표의 수립도 중요하지만 수립된 목표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정해진 기간에 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때 그 목표 수립의 의의가 있게 될 것이다.